

러시아 은행, 여신 증가 속 금융시스템 개선 필요

1. 러시아 은행부문의 자산 및 순이익 급증

□ 2011년 은행 자산, 전년 대비 23% 증가한 41.6조 루블 기록

- 러시아는 지난 해 유가 상승에 따른 소비수요 증가 및 투자 확대로 경기가 회복되고 자금 수요가 증가하면서 은행¹⁾의 자산 및 순이익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성장세를 시현함.
- 2011년 기업 및 개인 앞 여신규모가 전년 대비 각각 26% 및 36% 크게 증가하였고, 자산수익률(ROA)은 2010년 2.0%에서 2011년 2.4%로, 자본수익률(ROE)은 2010년 12.5%에서 2011년 17.6%로 각각 개선되었음.

<표> 연도별 러시아 은행부문 자산 및 순이익 추이

단위: 억 루블

	2006	2007	2008	2009	2010	2011
자 산 (증감률)	140,455 (44.1%)	202,410 (36.7%)	280,223 (38.4%)	294,300 (5.0%)	338,046 (14.9%)	416,275 (23.1%)
순이익 (증감률)	3,715 (41.7%)	5,080 (36.7%)	4,092 (-19.4%)	2,051 (-49.9%)	5,734 (179.6%)	8,482 (47.9%)

자료: 러시아 중앙은행.

1) 러시아 내 영업중인 은행 수: 922개 (2011년 말 기준)



2. 러시아 국영은행의 성장세 확대

□ 스베르은행(Sberbank)

- 러시아 최대의 국영은행으로 러시아 은행자산의 약 25%를 점유하고 있는 스베르은행(Sberbank)는 2011년 자산증가율이 22.8%를 기록했고, 순이익은 3,218억 루블로 러시아 은행부문 전체 순이익의 38%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.
- 스베르은행은 2011년 중 러시아 투자은행 트로이카 디אל로그(Troika Dialog), 보험회사 알리안츠 생명(Allianz Life)을 인수했으며 외국기업 중 스위스 SLB 상업은행(Schlumberger Commercial Bank AG)과 오스트리아 VBI(Volksbanken International) 자산을 취득하는 등 영업을 크게 확대하고 있음.

□ VTB 은행(전 Vneshtorgbank: 대외무역은행) 및 관계은행

- 러시아 내 자산규모 2위인 VTB(대외무역은행)는 자산이 전년 대비 48.6% 증가했고, 관계은행인 트랜스크레딧 은행(TransCreditbank)과 VTB24 은행의 자산도 각각 33.0%, 21.3% 증가했음.
- 대출 부실화로 공적자금 투입에 의해 VTB 자회사로 편입된 모스크바 은행(Bank of Moscow)은 기업여신 감소와 개인저축 이탈에도 불구하고 모기업 VTB의 자본 확충 지원과 기업예금 증가에 힘입어 자산이 34%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.

□ 급격한 여신 확대에 따른 위험가능성 내재

- 2011년 러시아 전체 은행의 개인여신이 전년 대비 36% 증가했고, 시중은행의 경우 회사채를 담보로 중앙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여신확대에 나서는 등 금융부문의 과열현상이 잠재되어 있음.
- S&P는 러시아 은행리스크 평가보고서(2012. 3)에서 2011년 러시아의 GDP 대비 은행 여신비율이 45.5%로 타 선진국에 비해 아직 낮은 수준이지만 낙후한 금융 시스템으로 여신 과다지원에 따른 리스크관리를 경고한 바 있음.



3.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필요

□ 금융기관 자금조달은 러시아 정부 의존 경향

- 유로존 재정위기 등으로 해외시장 차입이 어려운 상황이며 자국내 채권발행을 통한 차입도 한정된 상태에서 예금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수신증대 효과는 미미함.
- 은행권의 유동성 감소²⁾로 인해 은행들은 중앙은행의 재할인을 통한 자금 확보 및 재무부 단기자금 예치에 대한 의존이 증가함.
 - 2011년 말 은행들의 러시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차입금은 2002년 이후 최대인 8천억 루블을 기록함.

□ 자기자본 확충 및 수익성 확보가 과제

- 향후 여신확대를 위해 은행들의 자본 확충이 필요하나, 자기자본 확대 방안인 신규 수익 창출, 유상증자 등의 재원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은행의 추가 여신확대가 제한될 가능성도 있음.
- 한편, 러시아 정부는 은행시스템 건전성 강화를 위해 법정 최소자본금을 2012년 1.8억 루블에서 2015년 3억 루블로 인상할 계획이며, 향후 5년 이내 10억 루블 까지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.

□ 국영은행 민영화, 자본시장 육성 등의 개선 필요

- 정부의 집중지원을 받는 국영은행(특히 Sberbank 및 VTB)의 시장 지배력이 과다하여 상업은행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.
 - 국영은행의 자산비중이 2007년 43%에서 2011년 53%로 증가하였고 특히 스베르은행의 소매금융시장 점유율은 40%에 달함.
- 러시아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향후 국영은행 민영화, 금융감독 강화, 자본시장 육성 등 금융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.
 - S&P는 러시아 금융부문 경영의 질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은행법 및 관련 감독법의 효율성이 낮고 법집행의 공정성과 신속성이 취약함을 지적함.

【황상하, 모스크바사무소】

2) 유동자산 비율이 2009년 2분기에 29%를 상회하였으나 2012년 초 24% 아래로 하락(World Bank).